

Only-One기업 No.1

시티즌 토우호쿠 주식회사 [シチズン東北株式会社] [시계 바늘만 40년, 세계시장 점유율 30%]

(1) 기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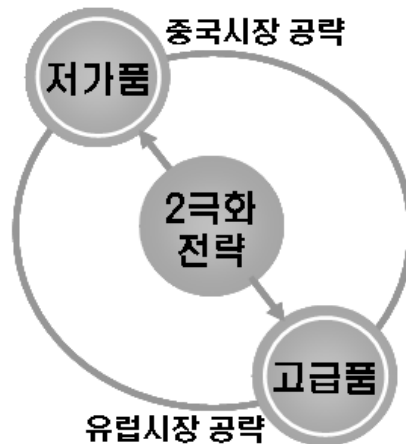
소재지	岩手県北上市北工業団地2-25
설립연도	1963년 7월
분야 (정밀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목시계용 바늘(시침, 분침, 초침) - 손목시계용 밴드(고급금속밴드, 플라스틱밴드) - 프레스가공 (반도체관련부품, FDD부품, 카메라부품) - 표면처리가공 - 금형
자본금	5,500만엔
URL	http://www.citizen-tohoku.co.jp/

(2) 기업이념 및 경영방침

시티즌 토우호쿠 주식회사(이하, 시티즌 토우호쿠)는 “작더라도 존재 가치가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경영상의 최대 신조이다. 따라서 시계 바늘의 존재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2극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스위스 등의 고급시계 시장 공략을 위한 제품 개발과 더불어 염가제품 개발을 통한 중국 등의 시장공략을 위한 생산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고객의 번영과 사회 공헌을 기업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기업이념을 이행하기 위해 생산시스템은 금형 제작에서부터 프레스가공·표면처리가공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납기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품의 존재가치 극대화를 위한 2극화 전략



한편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첫째,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노츠꾸리(もの創り)”의 발전을 도모한다. “모노츠꾸리”란 일반적으로 “물건 만들기” 정도로 직역되지만 일본 제조업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장인의 혼과 같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생산현장에서 바로 그 혼을 제품에 담아낸다는 것이다. 둘째, 고객이 원하는 품질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품질 개선활동에 전념한다. 셋째, 목표달성을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수행한다. 넷째, 품질목표는 전원이 철저하게 인지하여 정기적으로 수정해 나간다.

결국 품질 향상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시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품질향상의 최상위 목표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특징(상대적 우위성 혹은 독창성, Only-One 내용)

현재의 시티즌 토우호쿠는 2005년 10월 시티즌시계주식회사(シチズン時計株式会社)의 그룹사였던 시티즌 이와테(シチズン岩手)와 합병을 하기 전까지는 아게오정밀주식회사(上尾精密株式会社)라는 이름으로 1963

년부터 약40년 간 줄곧 시계용 바늘과 금속밴드를 제조하던 회사였다.

앞서 언급했던 시계바늘의 존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취했던 2극화 전략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유지했던 방침으로, 가격이 몇 천 만원에 이르는 고급시계부터 몇 만 원짜리 옴가시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뿐 아니라 모듈생산에 대한 대응과 미크론 정밀이 요구되는 금형기술과 최첨단의 표면처리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종래에는 최고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절삭 바늘은 고난도의 생산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당기간의 생산기간이 필요해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티즌 토우호쿠가 독자적인 생산기술력으로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다품종소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 생산도 고객의 납기 요구에 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시장 점유율을 한층 더 확대할 수 있었다.

현재 자사가 평가하는 시장점유율은 전 세계 아날로그시계 분야에서는 약20%이며, 다이아몬드 절삭 바늘을 사용하는 고급 아날로그시계 분야에서는 약60%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바늘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32%에 해당하는 약 15억 엔에 이르며, 손목시계용 바늘을 월 3000만개를 생산하고 있다.

(4) 성장과정 및 향후 과제

시티즌 토우호쿠의 성장에 있어서 정밀금형기술에서부터 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프레스, 절삭가공, 표면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제조라인 구축으로 양산체제를 조기에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주요했다. 또한 40여년 간 독자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로지 시계 바늘의 기술 개발에만 전념한 것이 세계시장에서 상대적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계는 외관성은 물론 기능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계회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능적 측면에서의 기술력 확보이다. 제품

기획단계를 거쳐 디자인이 구체화되어 생산 단계에 이르러 당초 의도대로 제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다. 많은 고객으로부터 시티즌 토우호쿠의 생산기술력이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의 시계회사들이 발 빠르게 생산거점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계 바늘 분야에서도 중국이 납기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점차 키워가고 있다. 홍콩 혹은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제품 개발은 물론 가격과 납기 측면에서도 한층 더 상대적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